

##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인숙<sup>1</sup>, 송민선<sup>2\*</sup>

<sup>1</sup>한남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건양대학교 간호대학

###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In Sook Lee<sup>1</sup>, Min Sun S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양질의 간호제공과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 정립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6월 D광역시 소재 일개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중간 이상이었으며, 봉사활동 동기, 봉사지속성 여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은 차이를 보였다.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r=.47, p<.001$ ), 간호전문직관과 봉사활동 만족도는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r=.51, p<.001$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동체의식( $p<.001$ ), 봉사활동 만족도( $p<.001$ )로서 이들의 설명력은 37.9%였다( $F=20.38, p<.001$ ).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전공분야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봉사활동이 지속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Establishing nursing professionalism is important for providing quality nursing care in various clinical settings and adapting to changing roles in a range of situation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volunteer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160 students in a nursing department of university in D city was used in June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 was above the middle level and differed according to the volunteer motivation and activity continuity significantly.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 sense of community ( $r=.47, p<.001$ ), and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 $r=.51, p<.001$ ).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a sense of community ( $p<.001$ ) and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 $p<.001$ ); this model could explain 37.9% ( $F=20.38, p<.001$ ). Therefore, nursing stud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in a range of activities linked to their field, nurture a sense of community, and develop nursing education programs that help build pride as a nurse and establish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Volunteer Activity, Sense of Communit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Min-Sun Song(Konyang Univ.)

email: mssong@konyang.ac.kr

Received July 29,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September 2,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인간이 느끼는 고독감과 허무감, 소외감 등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복이나 인성을 강조하는 노력 중 하나로 봉사활동이 대두되었다[1].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사회적 봉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대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인적, 물질 토대를 갖추고 있다[2]. 대학생은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대상으로서[3], 사회 각 분야에 전공능력을 갖춘 봉사자로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위증 부여만이 아닌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봉사교과목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자기발전 및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 있다[4]. 이러한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개인주의와 성과주의가 만연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인 공동체의 회복과 소외계층을 배려하게 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5].

봉사활동의 참여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데[6], 공동체 의식을 McMillan과 Chavis [7]는 구성원 의식, 영향력, 욕구 통합과 성취, 그리고 감정 공유의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Tonteri, Kosonen, Ellonen과 Tarkiainen [8]은 사회적 정체성, 구성원, 정서적 감정, 정체성, 영향력이라는 5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공동체라는 것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집합으로서 이는 지리적 범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9], 지역적이고 집합적인 의미보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공유되는 개념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성장하면서 획득되고 학습되는 것이라 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함양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였다[7]. 일반대학생들 중 사회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서 사회성이 증진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화되어 사회적 책임인식이 향상된다고 하였다[10]. 따라서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시행한 봉사활동의 긍정적 경험은 참여과정에서의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

하게 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여부보다는 봉사 활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의 간호활동 과정에서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 견해로서[11]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12].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협업이 진행되는 임상현장에서 양질의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신규간호사로서 임상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자신의 역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관에 대한 일반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노인체육전공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직업과 자신에 대한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또한, 대학생들의 전공관련 봉사활동은 직업가치관 형성에 일반봉사활동보다 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다. 간호교육은 예비의료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전공이론과 실습 기본 교육 및 비교과과정에서도 봉사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이 간호전문직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에 봉사활동이나 공동체의식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및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본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일개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 기준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 표본 수 산정 방식을 이용하며,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0%, 효과 크기( $f^2$ ) .15 (medium), 독립변수 9개로 두어 산출했을 때 적정 표본 크기는 141명이었다[14]. 탈락율을 고려하여 160명을 예상 연구대상자 수로 산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탈락을 없이 16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동기(자발적/비자발적), 봉사지속성 여부, 봉사활동 참여방법, 봉사 참여시간(지난 1년간 평균), 전공 관련 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 혹은 사회봉사 수업 이수 여부로 구성하였다.

#### 2.3.2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만족도는 대상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하며, Park [15]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척도를 대학생 대상으로 Shin [1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Shin [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2.3.3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Chavis 등[17]에 의해 개발된 공동체 의식 지표(Sense of Community Index)를 토대로 구성된 Park [18]의 공동체 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총 16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로 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alpha$ 는 구성원 의식 .82, 상호영향의식 .75, 욕구의 통합과 충족 .82, 정서적 연계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alpha$ 는 구성원 의식 .73, 상호영향의식 .58, 욕구의 통합과 충족 .78, 정서적 연계 .73이었다.

####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 [10]이 개발한 도구를 Kim [19]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총 18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alpha$ 는 전문적 자아개념 .80, 사회적 인식 .85, 간호의 전문성 .64, 간호계의 역할 .71, 간호의 독자성 .94였다.

###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특성과 봉사활동 만족도로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학생회 회의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문지 소요시간은 20분이었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KYU-2019-254-0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는 성적과 무관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 및 주요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변수들이 정규분포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0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27명(79.4%)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73명(45.6%)으로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03명(64.4%)로 많았으며,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6명(85.0%)으로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이 86.3%였다.

봉사활동 특성은 봉사활동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는 경우가 90명(56.3%)으로 많았고, 봉사지속성 여부는 6개월 미만인 90명(56.3%)으로 많았으며, 봉사활동 참여방법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79명(49.4%)로 많았다. 봉사 참여시간은 1년 평균 36.20±33.06시간으로, 지난 1년간 봉사 참여시간이 없었던 경우가 13명(8.1%)이었고, 11-30시간이 50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전 공관련 봉사활동은 96명(60.0%)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봉사 수업은 135명(84.4%)에서 이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and volunteer activitie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3(20.6)
	Female	127(79.4)
Grade	Sophomore	45(28.1)
	Junior	73(45.6)
	Senior	42(26.3)
Religion	Have	57(35.6)
	None	103(64.4)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0(6.3)
	Moderate	136(85.0)
	Low	14(8.8)
Major satisfaction	Not very satisfied	3(1.9)
	Not satisfied	19(11.9)
	Satisfied	118(73.8)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Very satisfied	20(12.5)
	Voluntary	70(43.8)
	Involuntary	90(56.3)
Duration to continue	<6month	90(56.3)
	≥6month, <1year	29(18.1)
	≥1year, <2years	20(12.5)
Method	≥2years	21(13.1)
	Individual	79(49.4)
	Fiends	40(25.0)
Participating time (hours)	Club or small group	35(21.9)
	Social service classes	6(3.8)
	0	13(8.1)
Major related	1-10	32(20.0)
	11-30	50(31.3)
	31-55	26(16.3)
	≥56	39(24.4)
Mean±SD(for 1year)		36.20±33.06
Completed social service classes	Yes	96(60.0)
	No	64(40.0)
Completed social service classes	Yes	25(15.6)
	No	135(84.4)

### 3.2 대상자의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은 Table 2와 같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63.33±11.23점(5점 만점 평균 3.51±0.62점)이었으며, 공동체의식은 55.40±9.00점(5점 만점 평균 3.46±0.56점)으로 하위 영역은 구성원 의식이 14.15±2.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연계 13.99±2.76점, 상호영향의식 13.67±2.31점, 욕구통합과 충족 13.59±2.67점 순이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65.94±8.52점(5점 만점 평균 3.66±0.47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전문적 자아개념 24.33±3.22점, 사회적 인식 17.43±3.87점, 간호의 전문성 11.97±1.81점, 간호계의 역할 8.34±1.17점, 간호의 독자성 3.87±2.27점이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을 보면, 간호계의 역할이 4.17±0.58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의 독자성이 1.93±1.13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in-Max	Mean±SD (5points)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	63.33±11.23	29-90	3.51±0.62
Sense of community	Membership	14.15±2.36	5-20	3.54±0.59
	Influence	13.67±2.31	7-19	3.42±0.58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13.59±2.67	7-20	3.40±0.67
	Emotional connection	13.99±2.76	7-20	3.50±0.69
	Total	55.40±9.00	28-76	3.46±0.56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24.33±3.22	14-30	4.06±0.54
	Social recognition	17.43±3.87	5-25	3.49±0.77
	Professionalism of nursing	11.97±1.81	5-15	3.99±0.60
	Role of nursing service	8.34±1.17	4-10	4.17±0.58
	Originality of nursing	3.87±2.27	2-10	1.93±1.13
	Total	65.94±8.52	38-90	3.66±0.47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를 보면, 봉사활동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t=4.14, p<.001$ ). 봉사지속성 여부 ( $F=8.46, p<.001$ )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이상 참여군이 6개월 미만 참여군과 6개월 이상-1년 미만 참여한 군보다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봉사 참여시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참여 시간이 없는 군에 비해 31-55시간 군과 56시간 이상 군이 유의하게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F=4.11, p=.003$ ). 반면,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 봉사활동 참여방법, 전공 관련 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 혹은 사회봉사 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보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88, p=.023$ ), 2학년이 4학년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전공 관련 봉사

활동을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t=2.20, p=.030$ ). 반면, 성별, 종교,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 봉사활동 동기, 봉사지속성 여부, 봉사활동 참여방법, 봉사 참여시간, 자원봉사 혹은 사회봉사 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을 보면, 봉사활동참여 동기에서는 비자발적 참여군이 자발적 참여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t=2.03, p=.044$ ). 봉사지속성 여부에서도 6개월에서 1년 미만 군과 2년 이상 군이 1년 이상 2년 미만 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F=4.08, p=.008$ ). 반면,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 봉사활동 참여방법, 봉사 참여시간, 전공관련 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 혹은 사회봉사 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é	Scheff	é	Scheff	é	Scheff
Gender	Male	33 (20.6)	61.42±10.15	-1.09 (.277)	56.00	0.43 (.669)	65.58	-0.28 (.782)
	Female	127 (79.4)	63.82±11.48		55.24±9.19		66.04±8.47	
Grade	Sophomore	45 (28.1)	64.31±12.77		56.02±7.95 <sub>a</sub>		67.44±9.39	
	Junior	73 (45.6)	64.32±10.14	1.76 (.176)	56.86±8.77	3.88 (.023) a)b	66.51±7.48	2.86 (.061)
	Senior	42 (26.3)	60.55±11.09		52.19±9.81 <sub>b</sub>		63.36±8.90	
Religion	Have	57 (35.6)	63.25±11.86	-0.07 (.947)	55.68±7.89	.30 (.767)	65.46±8.88	-0.54 (.592)
	None	103 (64.4)	63.37±10.93		55.24±9.59		66.21±8.35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0 (6.3)	65.90±11.92		56.70±12.1		67.10±5.55	
	Moderate	136 (85.0)	63.38±11.47	.58 (.561)	55.75±8.82	1.85 (.161)	66.13±8.63	.77 (.467)
	Low	14 (8.8)	60.93±8.20		51.07±7.51		63.36±9.27	
Major satisfaction	Not very satisfied	3 (1.9)	69.33±5.13		52.33±8.39		68.00±5.20	
	Not satisfied	19 (11.9)	61.00±9.17	3.31 (.022)	50.89±8.61	5.83 (.001)	61.84±6.59	5.40 (.001)

Satisfied	118	62.42±	55.08	65.53				
	(73.8)	11.63	±8.82	±8.60				
Very satisfied	20	70.00±	62.00	72.00				
	(12.5)	8.77	±7.23	±7.15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70	67.30±	56.16	67.49				
Involuntary	(43.8)	10.76	±9.25	±8.60				
Duration to continue	90	60.23±	4.14	0.94	2.03			
	(56.3)	10.66	(.001)	54.81	(.349)	67.74	(.044)	
<6month	29	67.66±	57.62	69.07				
	(18.1)	10.82 <sup>a</sup>	±9.60	±6.17 <sub>b</sub>	4.08			
≥1year	20	60.65±	54.30	62.25	1.93	4.08		
	(12.5)	9.37	±8.16	±8.26 <sub>a</sub>	(.127)	(.008)		
≥2years	21	71.62±	58.29	69.10				
	(13.1)	7.51 <sup>b</sup>	±9.78	±8.75 <sub>b</sub>				
Individual	79	61.38±	54.81	65.39				
	(49.4)	10.72	±8.90	±8.50				
Friends	40	67.53±	58.05	67.20				
	(25.0)	11.42	±9.97	±9.89				
Club or small group	35	63.97±	54.69	66.14	3.45	2.21	0.54	
	(21.9)	10.45	±7.59	±7.08	(.018)	(.090)	(.653)	
Social service classes	6	57.17±	49.67	63.67				
	(3.8)	14.51	±8.14	±7.45				
Participating time (hours)	13	56.00±	49.46	60.54				
	(8.1)	13.66 <sup>a</sup>	±9.79	±13.0 <sub>3</sub>				
1-10	32	63.16±	54.41	67.19	4.11			
	(20.0)	9.17	(.003)	±9.94	2.33	1.88		
11-30	50	60.68±	55.20	65.58				
	(31.3)	11.28	±8.54 <sub>a</sub>	±7.78	(.059)	(.117)		
31-55	26	65.92±	56.58	65.50				
	(16.3)	11.33 <sup>b</sup>	±8.23	±7.88				
≥56	39	67.56±	57.67	67.49				
	(24.4)	10.06 <sup>b</sup>	±8.36	±7.12				
Major related	96	64.94±	56.73	66.47				
	(60.0)	10.50	±7.78	±8.48				
No	64	60.91±	53.41	65.16	2.25	2.20	.95	
	(40.0)	11.93	(.026)	±10.3 <sub>0</sub>	(.030)	(.342)	(.342)	
Completed social service classes	25	66.28±	53.96	66.84				
	(15.6)	13.04	±10.5 <sub>5</sub>	±7.79	1.44	-.87	.57	
No	135	62.78±	55.67	65.78	(.153)	(.385)	(.569)	
	(84.4)	10.83	±8.70	±8.67				

### 3.4 대상자의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 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r=.47, p<.001$ ). 하위영역별로 보면, 봉사활동 만족도와 구성원 의식( $r=.45, p<.001$ ), 상호영향의식( $r=.34, p<.001$ ), 욕구통합과 충족( $r=.43, p<.001$ ), 정서적 연계( $r=.43, p<.001$ )와 정상관

관계를 보였다.

봉사활동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r=.51, p<.001$ ). 하위영역별로 보면, 전문적 자아개념( $r=.42, p<.001$ ), 사회적 인식( $r=.48, p<.001$ ), 간호의 전문성( $r=.41, p<.001$ ), 간호계의 역할( $r=.31, p<.001$ )과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간호의 독자성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s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a	b	c	d	e	f	g	h
	$r(p)$							
Sense of community	.47							
Nursing professionalism	.51							
(a) Membership	.45							
(b) Influence	.34	.65						
(c)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47	.81	.62					
(d) Emotional connection	.43	.82	.64	.77				
(e)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2	.54	.42	.55	.54			
(f) Social recognition	.48	.45	.33	.47	.49	.60		
(g) Professionalism of nursing	.41	.41	.25	.39	.37	.53	.48	
(h) Role of nursing service	.31	.36	.27	.35	.39	.57	.44	.59
(i) Originality of nursing	-.01	-.08	-.05	-.04	-.09	-.12	.13	-.05
	(.908)	(.289)	(.507)	(.596)	(.277)	(.139)	(.096)	(.518)
								(.014)

###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Durbin-Watson의 통계량=2.062),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67~.92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9 ~1.50으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이 주는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2개의 회귀 모형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대상자의 봉사활동 동기, 전공 만족도, 봉사활동 지속기간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이 세 가지 변수를 통제 한 후 주요 연구변수인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이 추가 투입되었을 때 설명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R^2$  변화량 .312,  $F=20.38$ ,  $p<.001$ ).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9%였으며, 모형 2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공동체 의식( $\beta =.39$ ,  $p<.001$ ), 봉사활동만족도( $\beta=.31$ ,  $p<.001$ )는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N=160)

Variables	Step 1				Step 2			
	B	$\beta$	t	p	B	$\beta$	t	p
Major satisfaction	3.57	.24	3.09	.002	1.32	.09	1.34	.182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2.47	.14	1.86	.064	0.68	.04	0.60	.550
Duration to continue	0.48	.06	0.79	.431	-0.40	-.05	-0.79	.430
Volunteers' activity satisfaction					0.23	.31	4.03	<.001
Sense of community					0.37	.39	5.31	<.001
	F=4.93(<.003) R <sup>2</sup> =.09, Adj. R <sup>2</sup> =.07,				F=20.38(<.001) $\Delta R^2 =.312$ , R <sup>2</sup> =.40, Adj. R <sup>2</sup> =.379			

Reference Group : Voluntary motivation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의 지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6.3%였으며, 1년 미만까지를 포함하면 74.4%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6개월 이내에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문제점을 지적한 Oh와 Kim [20]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봉사활동 비율은 높았으나 일회성의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활동의 지속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 관련 봉사활동은 60.0%에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Kang 등[1]의 연구에서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16.9%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은 노인관련 요양시설,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봉사활동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봉사활동의 전공연계범위를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66점으로 Lim [21]의 3.36점보다는 높았으며, Ko와 Kim [22]의 3.67점과는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하위항목에서 전문적 자아 개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았는데, Ko와 Kim [22]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간호의 독자성의 점수가 가장 낮아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간호의 독자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간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이 중요하며, 임상현장에서 부딪히며 간호전문직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21], 학생들의 간호업무의 독자적인 면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이 자발적인 경우, 봉사지속기간이 2년 이상 참여군이 6개월 미만 참여군과 6개월 이상-1년 미만 참여한 군보다 높았다. 이는 Yang [23]의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동기와 봉사지속성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자발성 여부로만 확인하였으나, Yang [2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이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하여 추후 봉사활동의 동기에 대해 면담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따라 지난 1년간 평균 31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참여한 군과 참여시간이 없는 군과의 봉사활동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결국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장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3, 23]. 일시적이고 감상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단기 참여가 아닌 봉사활동의 질적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와 적어도 31시간 이상 꾸준한 참여를 격려할 필요도 있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2학년이 4학년보다 전공관련 봉사활동 참여자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간호대학생들은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자기발전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과 함께 풍부한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23]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Yang [23]은 졸업과 취업요건에 따른 봉사시간을 채웠거나, 봉사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하여 봉사활동 관리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학년의 공동체의식이 4학년보다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ang 등[1]의 연구에서는 전공관련 봉사활동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이 일반 봉사활동 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어 전공관련 봉사활동 참여가 더 큰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학점취득을 위한 참여율이 선행연구[1]에서는 38.0%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5.6%로 적고,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율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봉사활동 동기가 비자발적인 경우와 봉사시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 군과 2년 이상 군이 1년 이상 2년 미만 군보다 높았다. 이는 Yoon과 Yim [24]의 연구에서 사회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형성은 봉사시간, 봉사기간, 봉사기관, 봉사동기, 참여경로, 참여분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부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졸업이나 학점 같은 비자발적인 경우에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는 점은 봉사에 참여할 때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전공관련 봉사활동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나 전공관련 봉사활동을 한 군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나 체육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 전공관련 봉사가 직업가치관 형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Kang 등[1]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직업가치관 형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봉사활동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은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이 간호전문직관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26].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고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6]. 결국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서로 간호대학생들이 대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은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며, 전공영역을 살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봉사활동의 교육을 통하여 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 Song [27]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헌신, 협동의식 함양, 이타심, 자기효능감이 상승된다고 하였다. 또한, Seo 등 [25]은 봉사활동시 뚜렷한 진로 의식과 자기개발 노력의식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직업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의 경험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직업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24]. 현재 간호계의 문제 중 신규 간호사가 임상에서 현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현상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22].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28] 학교 교육이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져주는 초석이라고 하였다[2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봉사활동을 1학년부터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공분야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예비간호사로서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봉사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 봉사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한 경우,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없는 경우보다 31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에서 높았다. 공동체의식은 2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고,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서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봉사활동 참여동기가 비자발적인 경우, 봉사지속성이 6개월에서 1년 미만과 2년 이상인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은 봉사참여 동기, 봉사 지속시간, 학년, 전공관련 봉사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책임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예비간호사로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속성 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저학년부터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봉사활동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이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호대학생들의 면담 등의 질적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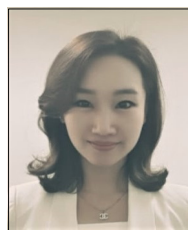
## References

- [1] S. G. Kang, D. H. Kim, S. H. Kim, S. H. Noh, M. G. Sin, H. I. Shin, et al. "The effect of major-related voluntary services on community spirit and occupation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3, No. 1, pp.175-184, Jan. 2019.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9.1.13.1.175>
- [2] W.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 education, importanc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 301-329, Mar. 2011.
- [3] J. S. Kang,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Will by Volunteer's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2, pp. 322-330, Feb.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2.322>
- [4] Y. H. Joh, "A study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llege volunteering with special reference on service learn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3, pp.243-268, Mar. 2002.
- [5] J. E. Johnson, C. Giannoulakis, N. Felver, L. W. Judge, P. A. David, B. F. Scott. "Motivation,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sport management student volunteers", *Journal of Applied Sport Management*, Vol. 9, No. 1, pp.30-55, Jan. 2017.
- [6] H. L. Seo, J. R. Park. "A preliminary study of effectiveness of an overseas volunteer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3, pp.139-168, Feb. 2014.
- [7]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a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pp.6-23, Jan. 1986.
- [8] L. Tonteri, M. Kosonen, H. K. Ellonen, A. Tarkiainen. "Antecedents of an experienced sense of virtual commun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7, No. 6, pp. 2215-2223, Nov. 2011.  
DOI: <https://doi.org/10.1016/j.chb.2011.06.018>
- [9] C. L. Hsu, Y. C. Liao, "Exploring the linkages between perceived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microblog stickiness: The moderating role of a sense of community", *Information & Management*, Vol. 51, No. 7, pp.833-844, Nov. 2014.  
DOI: <https://doi.org/10.1016/j.im.2014.08.005>
- [10] K. M. Nokes, D. M. Nickitas, R. Keida, S. Neville, "Does service learning increase cultur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4, No. 2, pp.65-70, Feb. 2005.

- [11]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Oct. 2005.
- [12] H. Kaya, B. Işık, E. Şenyuva, N. Kaya, "Personal and professional values held by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 24, No. 6, pp. 716-731. Sep. 2016.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15624488>
- [13] G. M. Kwon,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career search behavior of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major college student of elderly spor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7 pp.769-787. Mar.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7.769>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May, 2007.
- [15] J. H. Park, *The effect of engagement in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among the christians in old age on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life an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Korea, pp.45-46, 2010.
- [16] E. O. Shin, *The effe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life q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volunteer service satisfaction and immers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24-25, 2018.
- [17] D. M. Chavis, J. H. Hogge, D. W. McMillan, & A. Wandersman,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No. 1, pp. 24- 40. Jan. 1986.
- [18]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0, pp.273-306, Oct. 2009.
- [19]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p.27-28, 2008.
- [20] H. K. Oh, W Kim,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Vol. 35, No. 0, pp. 297-327, Dec. 2008.
- [21] Y. J. Li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8, pp. 649-664, Apr.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8.649>
- [22]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Apr. 2011.
- [23] Y. K. Yang, "Influenc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4, pp. 415-423, Nov.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415>
- [24] M. S. Yoon, S. Y. Yim, "A study of convergence social voluntary service activity and sense of profession values, self-esteem, socia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1, pp. 562-570, Nov.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562>
- [25] Y. H. Seo, H. N. Yu, K. C. Lee, J. H. Shi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s, establishment of job values, and behavior for course preparation, depending o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in voluntary service activity linked with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Vol. 25, No. 2, pp. 211-220, May. 2017.
- [26] M. H. Jeong,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6, No. 1, pp. 125-141, Mar. 2019.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9.36.1.125>
- [27] M. S. Song,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voluntary activities for rural communitie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2, pp. 1115-1130, Apr. 2019.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2.79>
- [28] K. Leduc, A. M. Kotzer, "Bridging the gap: A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students, new graduates, and seasoned professionals", *Nursing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5, pp. 279-284, Sep-Oct. 2009.

이 인 숙(In-Sook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건강, 부모 양육

송민선(Min-Sun Song)

[정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